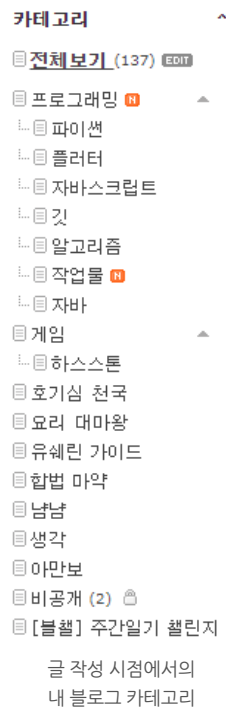


조만간 블로그를 정비하려고 한다. 1차적으로 IT테크 주제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 관련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높은 방문자 수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블로그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 이 글은 어떻게 블로그를 정비할 것인지 지금까지 생각한 내용과 각오를 담은 일종의 출사표, 선언문이다. 말은 거창한데 사실 별 내용은 없다.

높은 방문자 수는 읽는 사람을 위한 글을 쓸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지사지로, 방문자의 입장에서 카테고리부터 살펴보았다.



지금의 블로그 카테고리는 조금 난잡하다. 백종원 전략을 써보려고 한다. 카테고리를 줄이겠다는 소리다.



메뉴 간소화를 참 좋아하는 백종원 아저씨 사진  
[사진 출처 1](#) / [사진 출처 2](#) / [사진 출처 3](#)

내 블로그 카테고리는 크게 코딩, 게임, 요리, 만화, 일상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그나마저 누가 사진만 보면 백종원 덕질하는 줄 알겠다.

하위 카테고리를 늘리더라도 상위 카테고리는 위 다섯 개 정도로 줄여야 글 찾아보기도 좋고 블로그 정체성 형성하기도 좋을 것 같다.

카테고리 정리가 되면 카테고리별로 글을 연재해 보려고 한다. 아이디어는 생각해둔 것이 몇 개 있다.

코딩 카테고리에서는 코딩을 모르는 사람 대상으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가이드를 작성해 볼까 한다.

(성표도 따라 하는 라이엇 API 활용, 동업이도 놀라는 크롤링 활용 등등...)

코딩 카테고리 블로그에 연재한 글을 모아서 책을 내고 싶다. 연재할 때 쓰려고 튜터링 하면서, 혼자 코딩하면서 조금씩 글감을 모아두고 있다.

게임 카테고리에서는 게임 용어 정리, 게임 팁/공략, 게임 리뷰를 돌아가며 작성해 볼까 한다.

아마도 코딩 카테고리의 하위 카테고리에 올려야 할 것 같긴 한데, 간간이 게임할 때 쓸 만한 프로그램이나 웹 서비스 같은 걸 만들어 올릴 생각이다.

요리 카테고리에서는 메뉴 하나를 정해서 공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본 뒤 실험 보고서처럼 분석하는 글을 써 보려고 한다.

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는 편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전에 내가 만든 요리 사진을 보고 스스로 훈수를 뒤 보는 콘텐츠도 생각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다 보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다.

만화 카테고리에는 만화라고 적긴 했지만 만화를 비롯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리뷰를 적어볼 예정이다. 이들을 묶을 만한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일단 만화라고 적었다. 코딩이나 게임 쪽이 주가 될 것 같아서 자주 올리진 못할 것 같다. 다만 한 번 빠지면 보통 정주행하는 타입이라, 그땐 매일 같이 글을 쓸 듯.

일상 카테고리는 앞서 적은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글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추가적으로 프롤로그나 블로그 소개 카테고리도 만들어서 이 글을 비롯해 나와 내 블로그를 잘 설명한 글들을 모아두려고 한다.

블로그는 나와 맞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평소에 생각이 많고, 좋은 생각이 나면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메모해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이 있다. 이것을 글감으로 블로그에 정리하여 글을 쓸 때 만족스럽고 뿌듯함을 느낀다. 이웃 간 조회 수/댓글/공감 품앗이, 매크로를 통해 일시적으로 방문자 수를 높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 블로그에 꾸준히 양질을 글을 올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높은 방문자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명료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내가 쓰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꾸준히 양질의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한다.

좋아하는 주제로 글을 쓰는 일 자체가 좋긴 하지만, 좋은 글을 쓰고 IT테크 인플루언서라는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책도 내고 적게나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향후 이런저런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인플루언서도 쉽지 않겠지만 전업 블로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고... 전문적인 취미 정도로 블로그를 하고 싶다.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려고, 12시 전 대충 글을 올려놓고 이후 수정하는 편법을 쓰면서까지 매일 포스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언제나 목표는 담대하다. 조코딩, 안경잡이개발자, 빵형, 승우아빠 님 등등 저에게 힘을 주세요.

+

이런 방향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블로그 글 보시다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나 궁금한 점 불편한 점 같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더 나은 글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